

나주시 지속가능 미래농업 구현 박차

스마트팜·소득작물 육성 등을 4개 분야 11개 시범사업 추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접수

나주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구현을 위해 올해 신규 시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과수 기술, 소득작물, 식량작물, 스마트팜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받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친환경, 노동력 절감 등 미래 농업 현안에 대한 선제대응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한다. 총사업비 16억7750만원을 투입해 분야별 최신 기술 보급과 시설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수 기술 분야는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 기술 구축', '우리 품종 배 수출생산단지 모둠터 시설 지원' 등 5건이다.

소득작물은 '시설 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채소 일사강우센서 기반 스마트 관수 시스템' 등 4건이다.

식량작물 분야는 '벼 병해충 생력 방제 모판 관주처리', '스마트팜TF는'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자립 기반 1곳 구축'을 지원한다.



나주시 지원으로 구축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시스템. <나주시 제공>

신청 대상과 조건은 사업 예정지가 나주시 관할에 소재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실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 등이다.

오는 2월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새롭게 시범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은 농업인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설 명절 대비 서민·소상공인 지원

상품권 구매 100만원으로 상향

함평군이 설 명절을 맞아 서민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함평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1월 한 달 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특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류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을 각각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함평사랑상품권은 지역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 광주은행, 신한,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형 상품권(QR+카드)은 '지역상품권chak' 앱과 은행창구에서 구매 또는 충전할 수 있다.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 행사기간

전통시장 도·소매점에서 국산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 금액은 3만4000원 이상 구입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입시 2만원이며 수산물과 농축산물 구매시 각각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예산 소진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공공배달앱 '떡깨비'와 '땡겨요'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에게는 1만5000원 이상 구매시 3000원 할인과 배달비 3000원을 지원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주요 성수품 20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물가 합동점검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설 명절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화마 할린 담양 창평전통시장 재건축 첫 삽



지난 2022년 12월, 화재로 잿더미로 변했던 전남 담양 창평전통시장이 지난 20일 재건축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병노 군수와 이개호 국회의원, 정철원 군의회 의장, 박종원·이규현 전남도 의원, 군의원, 조성순 창평시장상인회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화재 후 임시시장과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 중이던 창평전통시장은 총사업비 98억원(도비 55억원, 군비 43억)을 투입해 재건축을 진행하게 됐다.

<담양군 제공>

강진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강진군이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2023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전남에 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부 중 한 명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결혼축

하금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200만원이 일시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필요한 서류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1부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외부 인구 유입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 백양사 주차장 올해도 주차비 무료

장성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천년고찰 백양사와 백암산을 올해도 주차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장성군은 지난해 국립공원 관할 주차장인 백암·가인·남창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해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와 체결한 업무협약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처음엔 3곳을 임대했으나 지난 10월 시설 백양 제1주차장 추가 임대를 통해 확보한 무료 주차 공간은 총 4곳, 978면에 달한다. 장성군은 지난해 주차장 무료화 추진을 통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실제 백양사와 백암산은 1971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누적 방문객 수 1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제64회 전남제전과 제33회 전남장애인제전 개최에 맞춰 추진하는 '장성 방문의 해' 운영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기대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백양사·백암산 인근 주차장 무료화 시책 추진은 장성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흥 유치~화순 이양 지방도 확포장 완료

2346억 투입 18년 공사 끝 개통

장흥 유치와 화순 이양을 연결하는 지방도 839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개념도)이 18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21일 개통했다. 장흥과 광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확포장 사업은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굴곡이 심한 기존 2차로를 4차선도로로 기능 확보와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도가 2006년부터 추진했다.

유치면 용문리에서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까지 약 15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했으며 총사업비 2346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이양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계획했으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도29호선 아문교차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사업이 완료됐다.

개통을 위한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설 이전인 21일 오후 2시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통행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 교통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전남의 중심축인 지방도 839호선 확장으로 광주권까지 50분 내 진입이 가능해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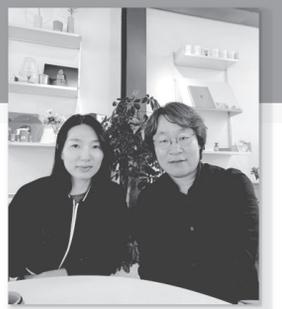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